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3. 4. 10. (월) 09:00~11:50
2. 장소 : 바롬인성교육관 103호 세미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9명 참석)
 - 가. 교원대표 : 신현숙, 이영화
 - 나. 직원대표 : 조현미, 한주호
 - 다. 학생대표 : 오윤영
 - 라. 조교대표 : 설혜리
 - 마. 동 문 : 최형심, 이귀우
 - 바. 외 부 : 김태현
4. 불참자 : 민병걸, 안정임, 이주형(이상 교원대표), 전지은(학생대표), 백성기(외부)
5. 심의 안건
 - 가.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 및 자연과학대학 개편 계획(안)
 - 나.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1.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 교원대표 이영화 교수
- 부의장 : 직원대표 조현미 지부장

2. 심의 안건 -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 및 자연과학대학 개편 계획(안)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하여 임효창 기획처장, 조성원 인문대학장, 홍정일 자연과학대학장이 배석하다.

기획처장이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 및 자연과학대학 개편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자연과학대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학과 교육 내용 변경도 있는지?
 - 현재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과별 커리큘럼 변경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 다만, 2024학년도부터 단과대학별 전공개방 광역모집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입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
- 자연과학대학 학생들 의견으로는 현재 단과대학 내에 과학기술, 융합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학과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과학기술융합대학 명칭은 자연과학 관련인지 공학 관련인지 불명확하다는 의견, 일부 학과를 배제하는 느낌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 명칭 변경에 대해 재논의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하다.

- 2024학년도부터 전공개방 광역모집 시행에 따라 단과대학 명칭 자체가 입시 모집 단위 명칭이 된다. 단과대학 명칭이 수험생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자, 입학 후 제1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속 학과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현재 자연과학대학 내에 자연과학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학과는 많지 않고, 과학기술과 융합이라는 단어가 소속 학과들에 어울리는 단어이다.
 - 미래산업융합대학의 융합(interdisciplinary)과 과학기술대학의 융합(convergence)은 한글은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의미이다. 학생들이 단과대학 명칭을 변경하며 새로운 융합을 할 거라고 오해하는데, 이미 현재 학과별 커리큘럼이 융합된 형태의 지식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기술과 결합된 교과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사회적·학문적으로 융합이 강조되고 있기에 ‘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공과대학에서 사용하는 공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Engineering이고, 변경안의 기술은 Technology이다. 자연과학대학 내 생명환경공학전공(Bio & Environmental Technology), 원예생명조경학과(Horticulture, Biotechnology & Landscape Architecture), 식품공학전공(Food Science & Technology) 등 이미 여러 학과에서 technolog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과명에 technology를 사용하지 않는 학과들에서도 융합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학과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4월 6일(목) 자연과학대학 전체 학생 간담회에서도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설명한 것이다.
 - 학교에서도 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교수가 하나의 전공에만 소속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전공에 소속될 수 있는 ‘겸무교수 제도’가 시행되고,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융합을 통한 ‘마이크로전공’이 개설된다. 학교의 전략적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단과대학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 전공 분리에 대해 학부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이견이 있는데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기존의 인원수대로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추후 학부 전공 분리의 선택이 될 것이라 중요한 사안이다.
- 대학발전위원회, 교무위원회에서의 결정도 학부가 되기 전 기존 인원수대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식품응용시스템학부는 100명을 50명, 50명으로 분리하였고, 화학·생명환경과학부는 바이오헬스융합학과 신설로 인하여 생명환경공학전공 교수 1명의 소속이 변경되고 학부 입학정원이 90명에서 80명으로 10명 감축된 점을 고려하여 화학과 45명, 생명환경공학과 35명으로 분리하였다.

- 인문대학 융합학부 설치에 대한 학생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우려사항이 많고 신설 학과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다 충분한 논의 진행 및 학부 신설 준비를 위해 도입(안)을 1년 보류하는 것을 제안한다.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해서도 많은 인문대학 교수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교수에게 귀기울여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겸무교수에 대해서도 기존 학과에 공백이 발생하고 시수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인문대학 내 융합학부 설치는 2022년 4월부터 시작해 10차례의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학과장 회의 등을 거쳐 추진되어 왔다. 인문대 전체를 포괄하는 융합학부 또는 첨단학과 신설을 위하여 3가지 방법을 검토했다. 인문대학 내 입학정원을 감축하며 융합학부(첨단학과)를 신설하고 모집단위 광역화 적용을 유예하는 것, 입학정원 감축 없이 융합학부(첨단학과) 신설 및 모집단위 광역화 적용하는 것, 융합학부(첨단학과) 신설 없이 모집단위 광역화만 적용하는 것이었다. 당시 논의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인문대학 8개 학과 중 신설 찬성 3개 학과, 반대 5개 학과였으며, 이에 융합학부(첨단학과) 신설 없이 모집단위 광역화만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후 인문대학 차원의 융합이 어렵다면 융합학부 신설을 원했던 3개 학과가 학과 차원 융합이 가능한지 검토하였고, 해당 3개 학과 중 2개 학과가 융합학부를 만드는 걸 추진하기로 하여 현재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만약 이것이 보류된다면 2024년에는 인문대학 내 모든 학과가 모집단위 광역화를 적용해야 하고, 지난 1년간의 결정에 대해 또다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 모집단위 광역화 관련하여 교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모집단위 광역화 시행여부는 지난 1월 이미 결정되었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입학생에 대한 관리이며, 기획처에서 T/F를 구성하여 곧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교수, 학생, 관련 행정부서 등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 겸무교수와 관련해서도 교무처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 배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과/전공간 벽이 없어지는 추세,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요구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인문대학 융합학부의 의사결정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융합학부 신설에 대해 두 학과가 모두 찬성했다고 했는데, 학과 내에 반대한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는 오류다. 독어독문학과 내에서 커리큘럼을 현재 구성(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 전공명칭을 문화콘텐츠로 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
- 이번 개편안은 전적으로 bottom-up으로 제시되었고, 학과의 개편 의견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제시·접수된 것이었는데, 학과 내에서 만장일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해의 차이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 회의자료의 독일문화콘텐츠전공의 교과목 구성표(안) 중 현재 독어독문학과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이 얼마나 있는지?
- 메타버스와 메타픽션, 독일어와 빅데이터, 독일어콘텐츠번역, 독일문화 이미지매핑 실습, 독일어의 구조와 기능, 글로벌비즈니스마인드분석, 글로벌문화이론과분석, 독일어권 문학과 예술의 이해 등이 현재 없는 교과목이며, 독·영 비즈니스콘텐츠는 기존 교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교과목 신규 개설과 변경이 독어독문학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변경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 일단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독일을 중심으로 알아본 바로는 메타버스 관련 학과가 학사과정에는 없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응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메타버스 관련 학과가 대학원에 만들어진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학교에서 학과를 새로운 방향으로 신설·개편하게 되면 그 방향에 따라 교수들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과를 개설하기보다는 1년 보류하고 다시 세세하게 논의하면 좋겠다.

- 학생들은 메타버스 관련 질문이 많았다. 메타버스를 학과명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수업이 부족하다고 하는 IT 관련학과 교수 소속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디지털미디어학과,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 등 유사 학과가 교내에 존재함에도 신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또한 공청회에서 메타버스 관련 질의를 하면 답변이 불충분하여 교수들이 메타버스 전공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학과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독일어 자체를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메타버스까지 배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본 개편안은 학생들의 지식 함양을 위한 것이 아닌 취직만을 위한 안으로 보인다는 의견, 타 학과 교수들의 소속변경 및 겸무교수 참여로 인해 해당 교수들의 본 소속 학과 수업 개설 문제발생 우려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전공 신설이 성급하다는 의견으로 보이는데, 메타버스전공을 꼭 내년에 신설해야 하는가?
- 우선 현재 개편안이 기존 독어독문학과 학생들도 메타버스를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신입생도 본인의 선호에 따라 트랙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ICT 관련 교과목을 많이 들으면 되고, 독일언어·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독일언어·문화 등 관련 교과목을 많이 수강하면 된다.
- 교수 소속 관련해서는 그동안 첨단학과를 신설하며 교수 소속이 A에서 B로 변경되

면 A에 남은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채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었다. 본교 교수 중 1명이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으로 소속 변경 예정인데, 해당 교수의 빈자리가 크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겸무교수는 학과 신설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겠지만, 신설 이후 겸무교수의 역할은 아주 크지 않아 본 소속 학과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기존 학과와는 차별성이 있다.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은 디자인에 기반한, 디지털미디어학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등 엔지니어링 및 기술에 기반한 학과라면,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에서는 콘텐츠에 기반하여 디자인과 기술까지 아우르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산업 현장에서는 인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콘텐츠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 메타버스라는 명칭이 부담되기도 하여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전공 등 다른 명칭도 고려해보았지만 교내 타 학과와 명칭이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메타버스는 플랫폼만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현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메타버스’와 ‘융합’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전공 교수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학부를 이뤄 함께 교육을 해나갈 것이다.

- 학생들이 신설 학부, 개편된 학과, 신설된 학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아,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해당 전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교수가 참석하여 학생 대상 간담회, 공청회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 개편안이 승인될 경우 몇 차례에 걸쳐 콜로키움, 학교 전체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 이름으로 입시가 시작되면 많은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특정 플랫폼만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다.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모든 세상이 디지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 삶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제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인문학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부분, 인간성 상실 등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고, 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이해, 윤리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에서 시작하고자 하며, 이 학과가 자리를 잘 잡게 되면 우리대학 인문대학 내 타 학과에도 확산할 수도 있고, 국내 대학 외국어 관련 학과들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에 없던 형태의 학과이고 메타버스라는 단

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두 학과에서 위험 부담을 안고 시도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했고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아 수정 보완하며 여기까지 진행해왔다. 해당 전공에서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ICT 기술을 겸비한 콘텐츠 기획자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을 수험생들에게 홍보를 잘 하고자 한다.

-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 커리큘럼을 보면 전공생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잘 배양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초기 계획 단계에서는 인문학 중심의 디지털 교과과정이 만들어졌는데, 대학발전위원회에서 기술 습득이 약하다는 우려를 나타내어 수정·보완하다보니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교육이 약해보이는 것 같다.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 신설을 준비하는 교수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커리큘럼을 확정하는 10~11월까지 계속 보완해나가겠다.
- 앞으로의 입시나 경쟁력을 고려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시기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범위가 국한되는 느낌이 들어, 신설전공 명칭을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미래지향적 개념으로 미래문화콘텐츠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떨지?
 - 전공 명칭도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학교가 원하는 것은 인문학을 기반으로 디지털 산업·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외국어, 디지털, 인문 등을 융합하여 학부명은 글로벌ICT인문융합학부로 정하게 되었다. 전공명도 해당 분야가 잘 드러나는 단어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입시경쟁력도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시도를 국내 대학에서 처음 하는 입장에서 관련 단어를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여러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메타버스를 포함한 전공명으로 결정했다.
 - 단어에 대한 의미나 느낌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미래’라는 단어도 추상적인 느낌이 있다. 완전히 의견이 통일된다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글로벌ICT인문융합학부 각 전공의 커리큘럼은 언제쯤 학생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지?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시기적으로는 5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글로벌ICT인문융합학부 전공 수업은 어느 건물에서 진행되는지? 결속력, 학과 정체성 등을 위해 대부분 같은 건물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 계획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는 인문사회관이 될 것이며, 추후 공간 조정하며 변경될 수 있다. 원활한 학생자치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

- 독어독문학과 학생들의 학부, 학과명 변경 의견으로 글로벌융합학부, 독어독문학전공, 독일어문화전공 등을 제안하였다.
- 대학발전위원회에서 학과 개편시 기존 전공명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은 배제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추후에는 학생들의 선호나 의견을 고려하여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오랜 고민 끝에 마련한 학과 개편 계획이 기존에 없던 융합이라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학생 설명회를 통해 메타버스융합콘텐츠전공을 준비하는 교수가 학생들의 불안을 낮춰주길 바란다.
- 「융합 특성화 학과 개편 및 자연과학대학 개편 계획」 (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3.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기획처장이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 (안)에 대하여 지난 대학평의위원회(2022-4차) 및 금일 심의한 안건에 대한 내용이 학칙에 반영되는 것임을 설명하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 (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3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5. 차기 회의 일정

- 4월 17일(월), 학칙 개정, 2022학년도 결산 자문 등을 위해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임을 알리다.

의장이 11시 5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4월 10일

의 장	이 영 화	<u>이영화</u> 이영화 (2023년 4월 13일 13:13 GMT+9)
부 의 장	조 현 미	<u>조현미</u> 조현미 (2023년 4월 14일 14:15 GMT+9)
평 의 원	신 현 숙	<u>신현숙</u> 신현숙 (2023년 4월 18일 08:53 GMT+9)
평 의 원	한 주 호	(서명) <u>한주호</u>
평 의 원	오 윤 영	(서명) <u>오윤영</u>
평 의 원	설 혜 리	<u>설혜리</u> 설혜리 (2023년 4월 17일 15:36 GMT+9)
평 의 원	최 형 심	(서명) <u>최형심</u> 최형심 (2023년 4월 19일 14:24 GMT+9)
평 의 원	이 귀 우	(서명) <u>Lee Gu</u>
평 의 원	김 태 현	<u>김태현</u> 김태현 (2023년 4월 13일 10:39 GMT+9)
간 사	김 홍 석	<u>김홍석</u> 김홍석 (2023년 4월 13일 10:08 GMT+9)